



**강 형 철** 한국방송학회 저널리즘연구회 회장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제약 속에서 이뤄지는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취재원은 물론 때로는 취재에 임하는 기자도 대상이 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상황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인 경우에 피해자들은 취재진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도 내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자들 자신도 비극적 상황 취재에 고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건사고나 재난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겪는 취재원과 취재진의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이 운영하는 <다트 센터>(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는 범죄, 가정폭력, 자연재해, 전쟁, 갈등 등 트라우마를 동반하는 상황에 기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난 보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재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기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재난 상황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직무 환경상 수시로 위협한 사건에 노출되는 기자들의 정신적 외상이 저널리즘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취재활동이 때로는 가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회는 방송기자연합회 재난보도 연구분과와 함께 재난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및 기자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숙명여대 배정근 교수팀이 세월호 참사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트센터> 펠로우인 SBS 이정애 기자가 오랜 동안 연구해 온 재난피해자 취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언론의 재난보도가 재난 피해자들 및 취재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함께 다루고, 재난취재에 경험이 많은 기자들의 토론과 학술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병행됨으로써 더욱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있는 발표에 나서준 발제자들과 세미나 취지에 공감해 준 사회자 및 토론자, 그리고 청중께 감사합니다. 행사진행에 큰 도움을 준 방송기자연합회 전동건 회장과 사무국 요원들께도 감사합니다.

## [세미나] ‘재난보도와 트라우마’

14:00 개 회

- (진행) 심훈 교수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간사
- (사회) 양승목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14:10 주제발표

- (발표1)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과 심리적 외상 피해자
  - 이정애 기자 /SBS
- (발표2) 외상성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와 취재 기자의 경험
  - 배정근 교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발표3)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세월호 참사 취재기자의 외상성 증상
  - 하은혜 교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임상심리학 전공

15:30 중간휴식

15:50 주제발표

- (발표4)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의 대처: 저널리즘 교육과 사회적 대처 방안
  - 이미나 교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16:20 종합토론

- 전동건 방송기자연합회장
- 이중우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장
- 나은영 교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 김경희 교수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17:00 폐 회